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자 디자인의 경향에 관한 연구

김 은 실* · 배 수 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A Study on the Hat Design in Contemporary Fashion

Eun-Sil Kim* · Soo-Jeong Bae**

Ph.D.,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4. 11. 12 투고)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hat design with the focus on the period from the 1990's to 2004 and to find ou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next hat design.

To do these purposes, the focus of theoretical approach was literature research, and hat design was attempted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The focus of theoretical background was on previous research and fashion-related literature. Fashion Photos were picked up from all kinds of fashion magazines containing Haute Couture collection in Paris from the 1990's to 2004 S/S and some designers' collections. Then 1,381 photos were selected through two screenings. At first time, 1,500 photos were selected to have the relationship between clothes and hats, and finally 1,381 photos were picked.

Key words: hat design(모자 디자인), Haute Couture Collection(오트 쿠튀르 컬렉션)

I. 서론

머리는 우리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시선이 머무는 대상이다. 이러한 머리를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되는 모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적인 측면에서도 착용자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패션 소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자는 19세기 이전까지는 신분이나 계급, 종교적 권위를 상징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었

고, 20세기 이후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모자 스타일이 공존하면서 개성 표현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듯 모자가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이후로 보여지며,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세기는 아르누보(Art Nouveau), 아르데코(Art Deco), 다다이즘(Dadaism), 미니멀리즘(Minimalism), 미래주의(Futurism), 오페아트(Op Art), 초현실주의(Surrealism), 입체주의(Cubism), 팝아트

(Pop Art), 페미니즘(Feminism),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 등과 같은 다양한 예술양식이 복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 시기로, 이는 모자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1930년대의 엘자 스키아파렐리(Elsa Schiaparelli)는 초현실주의 양식을 복식에 도입하였는데, 특히 소용돌이 형태의 모자, 뾰족한 어릿광대 모자, 새끼양 커블렛 모자, 주름진 오간자로 만든 조가비 형태의 모자, 신발 모양의 모자, 망원경 모자 등을 디자인함으로써 초현실적인 모자 디자인을 선보인 대표적 디자이너로 손꼽혔다.

이렇듯 예술양식은 디자이너들에게 의복뿐만 아니라, 모자 디자인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콜린 맥도웰(Colin Mcdowell)과 수지 홉킨스(Susie Hopkins), 카롤린 레놀드 밀뱅크(Caroline Rennold Milbank)는 모자에 많은 영향을 미친 예술양식으로 입체주의, 초현실주의, 미래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을 꼽았다¹⁾.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예술양식에 영향을 받은 모자 디자인의 특징을 분류하는데 있어, 입체주의에 영향을 받은 모자 디자인을 입체주의적 특성, 초현실주의에 영향을 받은 모자 디자인을 초현실주의적 특성, 미래주의에 영향을 받은 모자 디자인을 미래주의적 특성,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모자 디자인을 복고적 특성과 민속적 특성으로 각각 분류함으로써 현대패션에 나타난 모자디자인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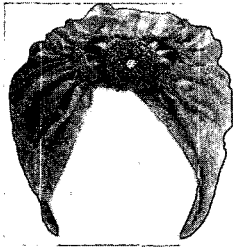
본 연구는 개성적인 모자가 착용되기 시작한 1900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모자 디자인의 시대적 변천을 모자에 영향을 미친 예술 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분류된 모자 디자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1990년부터 2004년 S/S까지 파리 오트 쿠튀르 컬렉션이 수록된 패션 잡지인 「Mode et Mode」, 「Gap Collections」, 「Collections」, 「Book Moda」에서 총 1500장을 발췌한 다음, 그 중 부적합하다고 사료된 19장을 제외한 1381장을 중심으로 모자 디자인의 경향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모자 디자인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II. 모자 디자인의 시대적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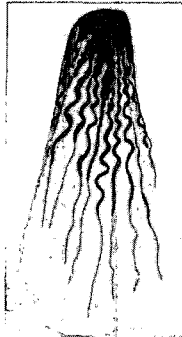
20세기 초기는 모자가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인식된 시기이다. 이 시기를 패션학자인 수지 홉킨스(Susie Hopkins)는 '모자에 대한 열광의 시기(Crazy about hat)'라 하였다. 따라서 모자 없이 외출하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고 이러한 모자의 필수성은 오트 쿠튀르 패션에서도 다양한 스타일의 모자가 발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 시기의 초반에는 물질적 풍요의 향락적· 퇴폐적인 분위기를 드러내는 신흥 부르주아를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한 부유층의 문화적이고 도회적인 양식인 아르 누보(Art Nouveau) 양식이 번성하였다²⁾. 이러한 양식은 의복에 S 커브 실루엣을 낳았고 자크 두세(Jacques Doucet, 1853-1929), 레드펀(Redfern, 1853-1929), 잔느 파퀸(Jeanne Paquin, 1869-1936)과 같은 많은 오트 쿠튀르 디자이너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서구사회는 본격적으로 근대화가 시작되었고, 기계적이고 기하학적 형태의 전환이 서서히 일어나 아르 데코(Art Deco)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다³⁾. 이러한 영향은 합리성과 기능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입체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본질적인 요소를 축소시킨 기하학적 라인의 추구로 엠파이어 튜닉 스타일(Empire tunic style), 호블 스타일(Hobble style), 미나렛 스타일(Minaret style), 튜블러 스타일(Tubular style), 스트레이트 박스 스타일(Straight box style)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타일과 함께 전쟁은 모자에도 영향을 미쳐, 선과 형태가 단순하며 체크무늬나 줄무늬, 기하학적 무늬와 같은 직물이 현대적인 감각을 살리면서 기능적으로 디자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국풍과 결부되어 터번<그림 1 참조>과 같은 디자인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로 접어들면서, 사회적인 변화는 패션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여성의 직장진출이 시작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현대 여성에게 적합한 패션이 요구되었다. 이는 아르데코의 예술양식과 기능주의의 추구가 더



〈그림 1〉 Paul Poiret 作
(1910), 「The Couture
Accessory」



〈그림 2〉 Elsa
Schiaparelli
作(1938), 「Elsa
Schiaparelli」

육더 성숙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초현실적인 예술양식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샤넬은 초현실주의를 모자디자인에 반영하여, 조가비 모양의 모자와 물고기 모양의 모자를 선보임으로써 해변에서의 생활과 수중 생물을 초현실주의 버전으로 나타냈다⁴⁾.

이러한 초현실주의적인 모자 디자인은 샤넬 뿐만 아니라 엘자 스키아파렐리에게도 영향을 줌으로써 현재까지도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재현되고 있다. 특히 엘자 스키아파렐리는 〈그림 2〉에서처럼, 매두사의 머리를 연상시키는 베일을 초현실주의적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하기도 하였다.

엘자 스키아파렐리는 인간 뇌의 소용돌이처럼 되풀이되는 소용돌이 모자, 뾰족한 어릿광대 모자, 새끼양 커틀렛 모자(Lamb cutlet hat), 주름진 오간자로 만든 조가비 형태의 모자(Seashell hat), 신발 모양의 모자(Shoe hat), 망원경 모자를 디자인하기도 했다⁵⁾. 그가 발표한 1937년 앞뒤가 뒤바뀐 신발형태의 모자(Shoe hat)는 초현실적인 모자의 극치를 이루었다.

1960년대는 우주 개막시대로, 앙드레 쿠레주와 피에르 카르담에 의해 미래지향적인 의복과 함께 헬멧이나 우주비행 모자가 소개되었다⁶⁾. 이는 기존의 낡은 예술을 모두 부정하고, 기계 세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다이내믹한 미를 창조할 것을 주장했던 미래주의에 영향을 받아 미래지향적인 형태와 특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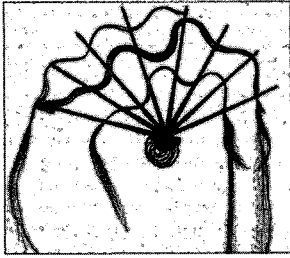
소재로 제작된 모자를 등장하게 하였다. 이외에도 옵아트, 팝 아트, 미니멀리즘과 같은 현대적 감각의 양식이 유행하여 패션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예술 경향을 패션에 도입한 대표적 디자이너로 이브 생 로랑이 있는데, 이브 생 로랑은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을 비롯한 많은 이전 시대 화가들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음으로써 의복과 모자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다.

1980년대에는 무절제한 과소비가 행해짐으로써 실질적인 소비생활과 함께 제품의 질적인 추구와 다양화·개성화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1987년 동구권 국가들의 개방과 정치 개혁을 선두로 다양한 국제 교류의 장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사회전반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타 문화권으로부터의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고 혼합하려는 방식이 두드러졌으며, 주류와 비주류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모더니즘적 문화와 사고방식을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크리스티앙 라크루아(Christian Lacroix, 1951-)는 민속풍 스타일의 의복과 함께 모자까지 선보였고, 파코 라반은 금속, 플라스틱, 종이, 비닐 등 옷감 이외의 다양한 소재를 의복 뿐 아니라 모자에까지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개념을 해체시켰다.

1990년대 초반 패션은 경기침체와 걸프전의 영향으로 절제와 구시대로의 복고 경향과 함께 세기말적 성향과 미래적 경향이 공존하였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지속적인 영향 아래 특정 스타일의 유행이 아닌 다양한 스타일이 혼재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모자에서도 이브 생 로랑에 의한 입체적인 형태의 모자와 필립 트레이시(Philip Treacy, 1967-)에 의한 초현실적인 모자, 티에리 뮈글러나 파코 라반(Paco Rabanne, 1934-) 등에 의한 미래적인 모자, 크리스티앙 라크루아나 크리스티앙 디오르 하우스, 장 폴 고티에(그림 3 참조)에 의한 민속적인 모자 등이 공존하는 다양한 모자 스타일이 나타난 시기이다.

특히 이 시기는 과거의 요소를 빌려와 혼합하는 복고풍 패션과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 다른 지역의 복식 양식을 절충하는 민속풍 스



〈그림 3〉 Jean Paul Gaultier
 작(2001), 「The Couture
 Accessory」

타일을 유행하게 만들었다. 복고는 고대, 중세, 근대, 근세의 모자들이 다시 현대 패션에 응용된 것이며, 민속풍 경향 또한 서양 문화에 의해 소외 되어온 동양 문화에 대한 관심과 원시성의 향수를 수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이는 과학기술의 확산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오늘날 각 나라 의상들의 상호 교환이 전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경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적 측면에서 미래지향적 패션을 예고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촌이 하나되는 민속풍 스타일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는 캐나다의 학자인 마셜 맥루언(Marshall McLuhan, 1921-1980)이 1960년대에 예견한대로, 글로벌 빌리지가 현실화된 것이다⁷⁾.

모자도 과거의 스타일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유행되었으며, 민속적인 모자들도 선보이고 있다. 또한 PC의 보급과 건강에 대한 관심은 사이버 패션, 기능주의 패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헬멧이나 우주모가 첨단 소재를 사용하여 선보이고 있다.

또한 세기말적 성향으로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욕구를 초현실적인 모드로 표현하여 모자에서도 크리스티앙 디오르 하우스나 필립 트레이시에 의해 초현실적인 모자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Ⅲ. 모자 디자인의 특성

현대 패션은 예술양식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예술양식에 영향을 받았다. 예술양식은 패션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에서 모자에 영향을 미친 예술사조로 패션학자 콜린 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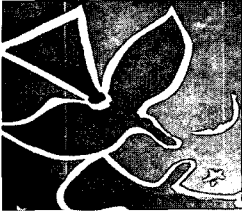
웰(Colin Mcdowell)과 수지 홉킨스(Susie Hopkins), 카롤린 레놀드 밀뱅크(Caroline Rennold Milbank)가 언급한 것을 근거로 입체주의, 초현실주의, 미래주의,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콜린 맥도웰⁸⁾이 그의 저서 「HATS: Status, Style and Glamour」에서 초현실적인 특징과 입체주의에 영향을 받은 모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인 복고풍 스타일의 모자⁹⁾와 민속풍 스타일의 모자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¹⁰⁾, 수지 홉킨스는 「The Century of hats」에서 디자이너와 인물을 중심으로 이러한 예술사조에 영향을 받은 모자 디자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¹¹⁾. 또한 밀뱅크는 그의 저서 「The Couture Accessory」에서 모자는 초현실주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양식에 영향을 받은 모자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분류하는데 있어, 입체주의에 영향을 받은 모자 디자인을 입체주의적 특성, 초현실주의에 영향을 받은 모자 디자인을 초현실주의적 특성, 미래주의에 영향을 받은 모자 디자인을 미래주의적 특성,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모자 디자인을 복고적 특성과 민속적 특성으로 각각 분류하고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입체주의적 특성

입체주의(Cubism)는 1900년부터 1914년까지 파리에서 일어났던 미술 혁신운동으로, 큐비즘이라는 명칭은 1908년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1869-1954)가 조지 브라크(George Braque, 1882-1963)가 그린 〈에스타크 풍경, View of L'Estaque (1882)〉이란 연작을 평하면서 '조그만 입체의 덩어리'라고 한데서 유래하였다¹³⁾.

입체주의가 의복에 영향을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났는지는 이미 선행 연구¹⁴⁾에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입체주의적 특성을 제 1기 초기 큐비즘, 제 2기 분석적 큐비즘, 제 3기 종합적 큐비즘으로 분류하고, 제 1기에서는 대상을 단순화시키고 관점을 복수화시킨다는 이론적 개념으로, 제 2기에서는 대상을 기하학적 형태로 환



〈그림 4〉 Braque 작 (1952-1953), 「현대 세계미술대전집」



〈그림 5〉 Yves Saint Laurent(2002 S/S), 「L'Officiel」



〈그림 6〉 Yves Saint Laurent(2001-2002 F/W), 「Mode et Mode」



〈그림 7〉 Givenchy (2003-2004 A/W), 「Gap Collections」



〈그림 8〉 Pierre Cardin(1990 S/S), 「Gap Collections」

원한다는 개념. 제 3기에서는 시각적 요소를 첨가함으로써 화면의 질서 구축이나 다양한 색채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복식에서는 입체과 화가의 작품을 응용하거나 기하학적 조형으로 표현. 강한 색상 대비, 투명소재의 사용, 폴라쥬 기법을 응용하는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모자에서의 강한 색상대비나 투명소재의 사용, 폴라쥬 기법의 응용은 다른 미적 특성과 중복이 되며 고유한 특성이 아니므로 제외시켰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모자 디자인에 나타난 입체주의적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 피카소, 브라크, 마티스와 같은 입체과 화가의 작품을 모자에 응용하는 방법, 둘째, 단순화된 형태나 기하학적 형태로 모자에 표현하는 방법, 셋째, 건축물과 같은 기하학적 조형을 모자에 응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입체과 화가의 작품을 모자에 응용하는 경우이다.

〈그림 5〉는 브라크의 작품〈그림 4〉를 응용한 이브 생 로랑의 작품으로, 회화에 등장하는 새가 모자로 응용되고 있는 예이다.

둘째, 단순화된 형태 또는 기하학적 형태를 모자에 응용함으로써 입체주의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제1기 초기 큐비즘에 영향을 받은 단순한 형태로 표현되는 작품들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림 6〉은 이브 생 로랑의 2001-2002 F/W작품으로서, 단순한 형태인 원모양의 모자 즉 차륜형태로 표현

되는 방법은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게 2차원이 아닌 3차원적 입체적 형태들 또한 제 2기 분석적 큐비즘에 영향을 받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그림 7〉의 경우에서처럼, 상자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건축물과 같은 기하학적 형태의 응용으로 입체주의적 특성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림 8〉은 1990 S/S 피에르 카르댕의 건축적인 형태가 보여지는 그림으로, 이는 기하학적인 형태들이 반복되고 서로 결합되면서 새로운 입체적인 형태가 탄생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패션에서는 입체주의에 영향을 받은 입체주의적 특성의 모자가 형태적인 면에 치중하면서 입체적인 형태로 선보이고 있다.

2. 초현실주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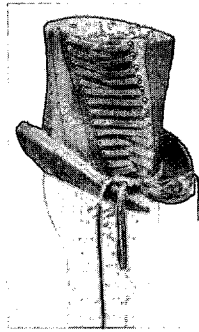
리차드 마틴(Richard Martin)은 초현실주의는 모자 디자인에서 가장 많이 애용하는 예술사조¹⁵⁾라고 말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자의 초현실성은 1930년대 엘자 스키아파렐리에서 시작되어, 그 후 많은 오트 쿠튀르 디자이너들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선행 연구¹⁶⁾¹⁷⁾를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모자 디자인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특성을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째, 초현실주의 화가의 작품을 모자에 응용하는 방법, 둘째, 첫 번째 특성에서 파생된 스케일의 변화, 셋째, 데바이즈망의 기법을



〈그림 9〉
Moschino(1995-
1996 F/W),
「Mode et Mode」



〈그림 10〉 Jean Louis
Scherrer(2003-2004
A/W), 「Gap
Collections」



〈그림 11〉 Christian
Dior(2000 A/W),
「The Couture
Accessory」



〈그림 12〉 Christian
Dior(1999 S/S),
「Mode et Mode」



〈그림 13〉 Phillip
Treacy(2000 S/S),
「Mode et Mode」

모자에 응용하는 방법, 넷째, 트롱프 뵤유를 모자에 이용하는 방법, 다섯째, 자연물의 형상을 모자에 응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었다. 단, 프로따쥬나 그라따쥬와 같은 기법은 모자에 응용되는 고유한 초현실주의적 기법이라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켰다.

첫째, 초현실주의 화가의 작품을 응용한 예로, 모스키노는 마그리뜨의 〈그림이 그려진 병, Painted Bottle(1928)〉을 응용하여 의복과 모자를 디자인하였는데, 〈그림 9〉에서처럼, 의복과 함께 모자에 하늘을 나타내는 이미지에 사람의 눈이 있는 마그리뜨의 작품을 응용하였다.

둘째, 초현실주의 화가 작품의 응용에서 파생된 특징으로 스케일의 변화가 있다. 이는 마그리뜨의 작품에서 돌을 잘라 만든 의자모양의 구조물 위에 실제 모양의 의자를 올려놓음으로서 구조물의 크기를 비교시킴으로써 스케일의 변화라는 특징을 파생시키고 있다¹⁸⁾. 이것은 초현실적 특성으로서 비례의 개념을 도입한 것인데, 〈그림 10〉의 장 루이 세레(Jean Louis Scherrer, 1935-)의 작품에서도 실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스케일 변화는 이미 칼 라거펠드에 의해 1980년대에 선보였는데, 이는 파란색의 소파에 앉아 있는 모델의 머리 위에 같은 형태의 소파 모자가 같은 색상으로 축소되어 씌워져 있어, 스케일의 변화와 더불어 위치나 본질이 변화됨으로서 새로운 충격을 주고 있는 작품이었다. 이러한 스케일의 변화는 모자를 매우 크게 혹은 작

게 만들므로써 전체적인 균형이 이루어지는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¹⁹⁾.

셋째, 모자에 데페이즈망의 원리를 이용하여 초현실주의적 특성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이 특성은 전혀 다른 엉뚱한 소재가 머리 위에 착용되는 것으로, 가면이나 새장, 책, 코르셋, 정경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림 11〉은 코르셋 형태의 모자로 허리를 조이는데 써야 할 코르셋을 모자로 착용함으로써 데페이즈망의 원리를 충실히 지키고 있다.

넷째, 트롱프 뵤유 기법을 모자에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1990년대 이전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1949년 봄 컬렉션에서 의복과 모자에 트롱프 뵤유 컬렉션을 선보였으며²⁰⁾ 엘자 스키아파렐리 역시 트롱프 뵤유를 응용한 스웨터 컬렉션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의복에 어울리는 모자 역시 한쪽 눈만 가리는 형태로 눈속임 기법을 응용하기도 하였다²¹⁾. 〈그림 12〉는 손을 이용한 전형적인 트롱프 뵤유로서, 손 모양의 모자와 실제 손과 가짜 손 사이에서 눈속임을 유도하고 있다.

다섯째, 자연물의 형상을 모자에 응용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조가비의 형태를 많은 응용하기도 하고, 꽃모양이나 나무 형상을 주제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림 13〉은 필립 트레이시의 나무 형상의 초현실적 형태의 모자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으로 이

러한 예를 잘 보여주고 있다.

3. 미래주의적 특성

미래주의는 20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전위 예술운동으로, 이 운동은 시인 필리포 토마소 마리네티(Filippo Tommaso Marinetti, 1876-1944)가 1909년 2월 「피가로」지에 '미래주의 선언'을 발표한 것이 그 효시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마리네티는 기존의 낡은 예술을 모두 부정하고, 기계 세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다이내믹한 미를 창조할 것을 주장하였다²²⁾.

선행 연구를 보면 류홍식²³⁾은 의복에 표현된 미래주의적 특성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폭력성 및 전쟁옹호로 인해 밀리터리룩으로 표현되며, 둘째는 진보성 및 역동성으로 인해 우주 이미지의 표현과 특수 소재의 등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폭력성 및 전쟁옹호로 인한 밀리터리룩은 20세기 초 미래주의가 발생된 파시즘이 대두되었던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는 등장했을 수 있으나, 현대에 밀리터리룩은 미래주의에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진보성 및 역동성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모자에서의 우주 형태를 표현하는

기하학적 이미지와 특수 소재의 활용이라는 크게 두 가지의 특성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 우주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 기하학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이때 기하학적 이미지란 구체적으로 행성의 형상이나 띠, 인공위성, 우주전사가 착용하는 우주 헬멧과 같은 형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경우이다.

〈그림 14〉는 파코라반의 작품으로 우주행성의 띠 형태를 모자에 표현한 대표적인 예이다. 이 외에도 〈그림 15〉는 인공위성의 형태, 〈그림 16〉은 파코라반의 우주전사 이미지로, 알루미늄 판을 삼각 커팅하여 미래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 모자에 특수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미래주의적 특성을 표현할 수 있다. 소재에 있어서 의복과 함께 플라스틱이나 금속, 알루미늄과 같은 메탈릭(Metallic) 소재, 형광섬유, 홀로그래피(Holography) 소재, 코팅소재 등 다양한 하이테크(Hi-tech) 소재를 모자에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또한 파코라반은 알루미늄 판이나 금속 재질, 광택 소재, 고무 소재를 사용한 모자를 선보이고 있는데 〈그림 16〉은 알루미늄을 이용한 작품의 예이다. 이 외에도 우주선의 유리창과 빠른 비행 속도의 개념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투명함은 우주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오간자나 쉬폰과 같은 비치는 소재나 비닐과 같은 투명한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느낌을 표현하기도 한다. 뿐만 아



〈그림 14〉 Paco Rabanne
(1991 S/S),
「Mode et Mode」



〈그림 15〉 Christian Lacroix(2000 S/S),
「Mode et Mode」



〈그림 16〉 Paco Rabanne
(1997 S/S),
「Mode et Mode」



〈그림 17〉 Philip Treacy(2001 F/W),
「Mode et Mode」

나라, 첨단매체에 영향을 받아 TV나 컴퓨터, 비디오 화면을 통해 보여지는 여러 가지 빛을 발하는 원색의 다채로운 색감들을 홀로그래픽 효과로 가공처리한 소재를 앙드레 쿠레주나 티에르 뒤킴러, 필립 트레이시 등에 의해 모자 디자인에 선보여졌는데, <그림 17>은 원색적인 홀로그래픽 소재를 사용한 베일의 형태로 미래적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티에리 뒤킴러는 의복과 함께 모자에서도 라텍스나 고무소재, 플라스틱, 타이어, 신소재, 라이크라, 비닐, 가죽 소재를 사용한 우주전사의 이미지를 선보이고 있다.

4. 복고적 특성

복고적 특성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영향을 받아 모자에 복고풍 스타일로 표현된 것으로, 90년대 이후 이러한 현상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박중희²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 중 하나인 패러디(parody)는 인류가 경험한 모든 문화적 속성을 본질적으로 모방의 의지라고 인식하고 이미 사용된 양식을 부분적으로 인용하거나 하나의 형식을 그대로 빌려오면서 내용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특징은 패션에서 복고풍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박명희²⁵⁾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역사성, 토속성, 전위성으로 분류하고 이 중

역사성이 복고풍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면서, 역사의 회고나 재현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모든 요소들을 임의적으로 조립, 절충함으로써 양식의 유희를 즐기고자 하는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서 왔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모자에서의 복고적 특성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고대 스타일, 중세 스타일, 근세 스타일, 근대 스타일의 응용으로 구분 짓고, 이 중 20세기 이후의 스타일은 계속 복고적인 모드로 등장하기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이전의 스타일로 한정시키고자 한다.

첫째, 고대의 모자가 재해석되는 경우로서, 이집트의 가발, 클래프트(Klaff), 투탕카멘의 관의 형태나 크리트의 뱀을 이용한 모자, 그리스의 월계관 등이 등장하고 있다.

<그림 18>에서는 디오르 사의 2004 S/S 작품으로 투탕카멘의 관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정교하게 재해석된 작품이다.

둘째, 중세의 모자가 재해석되는 경우로, 특히 중세 전기의 릴리파이프 후드(Lilipipe hood)나 윙플(Wimple), 중세말기의 베일(Veil), 슈가로프 햇(Sugarloaf hat), 기사도 모자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9>는 중세의 윙플로 얼굴이나 목, 머리를 감싸는 형태로 피에르 발맹에 의해 재현되었다.

셋째, 근세의 모자가 재해석되는 경우로, 바레트



<그림 18>
Christian Dior
(2004 S/S),
「Mode et M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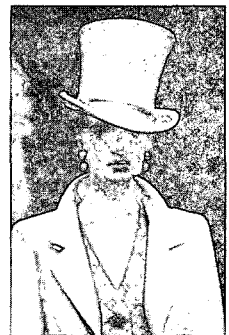
<그림 19> Pierre
Balmain
(1990-1991 S/S),
「Mode et Mode」



<그림 20> Jean Paul
Gaultier(1998 S/S),
「The Couture Accessory」



<그림 21> Jean Paul
Gaultier(1992 S/S),
「Hats」



<그림 22> Christian
Dior(1994 S/S),
「Mode et Mode」

(Baret), 발조(Balzo), 게이블 후드(Gable Hood), 에스코피옹(Escoffion) 등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바로크 시대의 바이콘, 로코코 시대의 트리콘, 보넷(Bonnet), 배 형태의 모자 등으로 표현되어진다. <그림 20>은 18세기의 머리장식이었던 배 형태를 이용한 작품으로 골티에에 의해 재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배 모양의 장식은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재해석되고 있는 예이다.

넷째, 근대의 모자가 재해석되는 경우로, 토크, 보넷, 실크 햇(Silk hat), 탑 햇(Top hat), 바이콘 등이 재해석되며 그 중 특히 로맨틱 시대의 탑 햇이 주로 자주 등장하는 스타일이다. <그림 21>은 19세기 나폴레옹에 의해 착용된 이각모가 골티에와 같은 아방가르드한 디자이너들에 의해 니트로 짜여지고 깃털로 장식된 새로운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 또한 <그림 22>는 19세기에 유행했던 탑 햇을 응용한 것으로 남성의 권위의 상징이었던 탑 햇이 검은색 탈피와 함께 형태 자체도 변형되어 재해석되고 있다.

프랑스의 가장 성공한 모자 디자이너인 장 바르뜨(Jean Barthe)가 “현대에는 새로운 모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정도로 복고적 스타일의 모자 디자인은 현대에 와서 모자 디자인을 창작하는데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다²⁶⁾.

5. 민속적 특성

민속적 특성은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영향을 받아 나타난 현상으로, 다양한 민속적 요소가 가미되어 각 나라 스타일의 특징을 모자에 도입시킨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박명희²⁷⁾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으로 토속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러한 토속성은 복식에 토착적이고 민속적인 요소의 도입 및 절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서구 문화의 국제적인 지배로 인해 국제화된 모더니즘은 무시되어 왔던 민속복이나 소외된 지역의 복식형태의 도입인데 주로 동양이나 아프리카, 혹은 구미지역 전통 복식을 재해석함으로써 신비적이며 고유한 이미지를 존중하는 원시성이나 인간 본능에의 향유 현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류순경²⁸⁾은 민속품은 허피 패션에서 영향을 받은 자연주의 패션과 제

3세계의 패션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이는 패션에서 동양풍과 원시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고 있다.

민속적 특성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토속성에 영향을 받아, 그동안 지배문화에 의해 도외시되었던 소수 민족의 민속복의 모자를 등장시킨 것이다. 이러한 민속적 특성은 장 폴 골티에, 이브 생 로랑, 크리스티앙 라크루아, 피에르 발맹 하우스, 크리스티앙 디오르 하우스 등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모자에 나타난 민속적 특성을 크게 중국풍, 인도풍, 아프리카풍, 그밖에 중동풍이나 유럽풍 등을 기타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풍의 모자 스타일이 표현되는 경우로, 서구 문화중심의 사회에서 비주류로 인식되어온 동양이 부각됨으로써 패션에서 하나의 오리엔탈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모자에서는 특히 중국풍 스타일이 자주 등장했다. 특히 중국 노동자 모자인 쿨리 스타일(coolie-style), 만다린, 부채 모자 등은 동양적이고 민속적인 모자를 표현하는데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림 23>은 중국풍의 만다린 모자로 장 폴 골티에에 의해 자주 등장하는 요소이다. 이 외에도 부채 형태는 자주 등장하는 요소인데, <그림 24>는 부채살을 이용한 머리장식으로서, 중국풍의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둘째, 인도풍의 모자가 사용되어 민속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5>는 인도의 축제일에 착용하는 민속복을 선보인 작품으로, 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관과 함께 매치시킨 크리스티앙 라크루아의 1997년 작품이다. 이렇듯 라크루아는 민속풍 스타일을 작품 주제로 많이 사용했다.

셋째, 아프리카풍의 모자가 사용되어 민속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6>은 아프리카 헤어스타일을 가발 형식의 모자로 제작하여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

넷째, 중동풍이나 유럽풍의 모자가 사용되어 민속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로, <그림 27>은 골티에의 터번 스타일로 이는 중동풍의 민속적 두건 형태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 밖에도 제 3세계의



<그림 23> Jean Paul Gaultier(2001 A/W), 「Mode et Mode」



<그림 24> Jean Paul Gaultier(2001-2002 A/W), 「Mode et Mode」



<그림 25> Christian Lacroix (2002-2003 F/W), 「Mode et Mode」



<그림 26> Christian Dior (2002 S/S), 「Gap Collections」



<그림 27> Jean Paul Gaultier (2000 S/S), 「Mode et Mode」

다양한 민속풍 스타일의 모자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2000년대 초 패션 트렌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IV. 패션잡지에 수록된 모자 디자인의 작품 경향 분석

본 절에서는 III장에서 분석된 모자디자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각각의 특성에 해당되는 디자인을 패션 잡지에서 발췌한 후, 모자 디자인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췌한 사진은 2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총 1500장을 추출하고, 그 중 부적절한 19장을 제외한 1381장을 중심으로 각각의 특성에 해당되는 사진 자료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 분석 결과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으며, 이는 시기별 모자 디자인의 특성의 변화를 표로 나타낸 것이고, <그림 28>은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모자 디자인의 빈도수는 입체주의적 특성(57.7%), 민속적 특성(14.4%), 초현실적 특성(8.7%), 미래주의적 특성(8.1%), 복고적 특성(6.2%), 두 가지 이상의 특성이 혼합된 혼합형(4.9%)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입체주의적 특성의 모자 디자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점점 감소 추세에 있

었다. 특히 최근에는 복고적 특성과 민속적 특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두 가지 이상의 특성이 포함된 혼합형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60년대에 유행이었던 미니멀리즘이 90년대 초에 재부활하면서 현대적이고 조형적인 스타일이 선보이면서, 모자에서도 단순한 형태가 강조된 입체주의적 특성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입체주의적 특성은 90년대 말에 들어와 점점 감소추세를 보였다.

또한 초현실주의적 특성은 그다지 큰 빈도수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했던 밀뱅크의 발언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밀뱅크는 모자에서 초현실주의적 특성은 가장 두드러진 예술양식이라고 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2002년에는 다른 예술 양식에 비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그다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래주의적 특성은 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까지 즉 세기말에 대체적으로 많은 분포율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세기말 현상의 일환으로서, 90년대 중반부터 미래에 대한 관심이 사이버 패션을 출현시킴으로써 이에 따라 모자에서도 미래주의적인 디자인이 많이 선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고적 특성은 2003년 이후 더욱 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포스트모더니즘이 2000년대에 와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민속적 특성 또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국제화되고 다양화된 문화에 의한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에서 출발한 것으로 사료된다.

2. 모자 디자인의 특성에 따른 작품 비율

첫째, 입체주의적 특성의 모자 디자인 분석 결과, 총 797장 중 화가 작품을 응용한 경우는 32장(40%), 단순한 형태는 692장(86.8%), 건축적인 조형은 73장(9.2%)으로 분석되어,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초현실주의적 특성의 모자 디자인 분석 결과, 총 120장의 작품 중에서 화가 작품을 응용한 경우는 15장(12.5%), 스케일의 변화는 12장(10%), 데페이즈망 기법을 응용한 경우는 49장(40.8%), 트롱프뢰유 기법을 응용한 경우는 24장(20%), 자연물의 응용은 20장(16.7%)으로 데페이즈망 기법이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미래주의적 특성의 모자 디자인 분석 결과, 총 112장의 작품 중 우주의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은 72장(64.3%)작품으로 나타났고, 특수 소재를 응용한 경우는 40장(35.7%)작품으로, 인공위성이나 안테나, 우주전사의 헬멧, 우주행성, 행성의 띠 등의 우주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디자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복고적 특성의 모자 디자인 분석 결과, 총 85장의 작품 중에서 고대 스타일을 응용한 작품은 48장(56.5%), 중세 스타일을 응용한 작품은 13장(15.3%), 근세 스타일을 응용한 작품은 15장(17.6%), 근대 스타일을 응용한 작품은 9장(10.6%)작품으로 이중 이집트나 그리스, 크리트 등의 고대 스타일을 응용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민속적 특성의 모자 디자인 분석 결과, 총 199장의 작품 중에서 중국풍을 응용한 작품은 95장(47.7%), 인도풍을 응용한 작품은 28장(14.1%), 아프리카풍을 응용한 작품은 34장(17.1%), 기타 그 외의 민속풍은 42장(21.1%)으로 이 중 만다린 모나쿨리모, 부채 형태 등 중국풍을 응용한 중국풍 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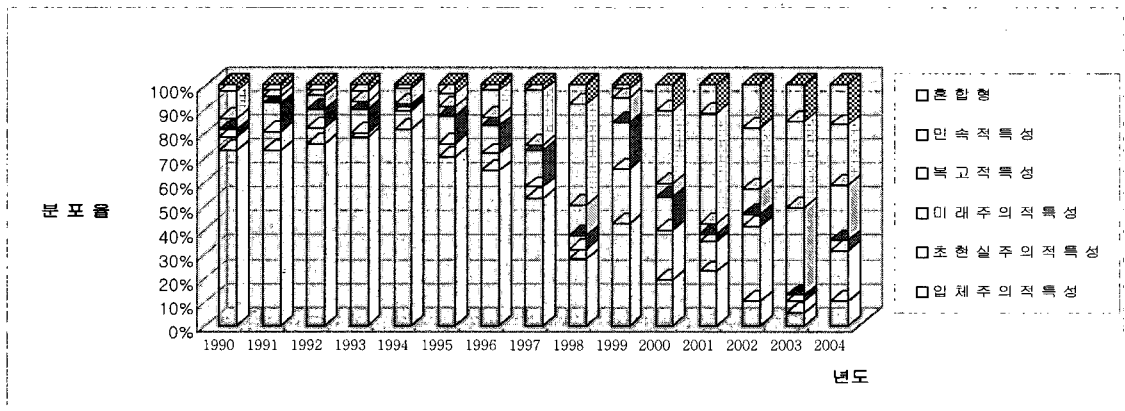
<표 1> 시기별 모자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의 변화

(단위: 빈도(%))

조형적 특성 년도	입체주의적 특성	초현실주의적 특성	미래주의적 특성	복고적 특성	민속적 특성	혼합형	합계
1990	135(72.6)	10(5.4)	6(3.2)	9(4.8)	21(11.3)	5(2.7)	186
1991	93(72.7)	10(7.8)	15(11.7)	4(3.1)	3(2.3)	3(2.3)	128
1992	67(75.3)	6(6.7)	7(7.9)	5(5.6)	2(2.2)	2(2.2)	89
1993	120(77.9)	3(0.5)	15(9.7)	5(3.2)	7(4.5)	4(2.6)	154
1994	122(81.3)	12(0.08)	2(1.3)	2(1.3)	10(6.7)	2(1.3)	150
1995	74(69.8)	6(0.6)	12(11.3)	4(3.8)	6(5.7)	4(3.8)	106
1996	56(64.4)	6(6.9)	10(11.5)	3(3.4)	10(11.5)	2(2.3)	87
1997	46(52.9)	4(4.6)	13(14.9)	2(2.3)	20(23.0)	2(2.3)	87
1998	20(27.8)	3(4.2)	4(5.6)	9(12.5)	30(41.7)	6(8.3)	72
1999	24(42.1)	13(22.8)	11(19.3)	6(10.5)	2(3.5)	1(1.75)	57
2000	14(19.2)	15(20.5)	10(13.7)	4(5.5)	22(30.1)	8(10.1)	73
2001	15(22.7)	8(12.1)	2(3.0)	3(4.5)	30(45.5)	8(12.1)	66
2002	4(10.3)	12(30.8)	2(5.1)	4(10.3)	10(25.6)	7(17.9)	39
2003	2(5.1)	2(5.1)	1(2.6)	14(35.9)	14(35.9)	6(15.4)	39
2004 S/S	5(10.4)	10(20.8)	2(4.2)	11(22.9)	12(25)	8(16.7)	48
합계	797(57.7)	120(8.7)	112(8.1)	85(6.2)	199(14.4)	68(4.9)	1381(100)

〈표 2〉 모자 디자인의 특성에 따른 작품 분포율

분류	작품 분석 기준	작품수	작품비율(%)	합계	
조형적 특성	입체주의적 특성	화가작품 응용	32	4.0	797(57.7%)
	단순한 형태	692	86.8		
	건축적인 조형	73	9.2		
초현실주의적 특성	화가 작품응용	15	12.5	120(8.7%)	
	데페이즈망	49	40.8		
	트롱프 뤼유	24	20.0		
	자연물응용	20	16.7		
	스케일의변화	12	10.0		
미래주의적 특성	우주형태 표현	72	64.3	112(8.1%)	
	특수 소재 응용	40	35.7		
복고적 특성	고대 스타일	48	56.5	85(6.2%)	
	중세 스타일	13	15.3		
	근세 스타일	15	17.6		
	근대 스타일	9	10.6		
민속적 특성	중국풍	95	47.7	199(14.4%)	
	인도풍	28	14.1		
	아프리카풍	34	17.1		
	기타	42	21.1		
혼합형		68		68(4.9%)	
총 합		1381	100	1381(100)	



〈그림 28〉 시기별 모자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의 변화

일의 응용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표 2〉에서는 세부적으로 작품 분석 기준에 따른 모자 디자인의 비율을 표로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입체주의적 특성에서는 단순화된 형태나 기하학적 형태를 응용한 경우(86.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초현실주의적 특성에서는 데페이즈망 기법을 응용

한 경우(40.8%), 미래주의적 특성에서는 우주 형태를 표현한 경우(64.3%), 복고적 특성에서는 고대 스타일을 응용한 경우(48%), 민속적 특성에서는 중국풍을 응용한 경우(47.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V. 결론

모자는 머리를 보호하고 그 사람의 인상과 성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인류의 복식사를 더듬어 보면 고대부터 그 후 수 천년 동안 각 사회의 계급이나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모자를 착용해 왔다. 이러한 모자는 20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그 사용이 감소되었으나, 오트 쿠튀르 패션에서 모자라는 아이템은 끊임없이 사용되는 필수적인 수단이었다. 디자이너들은 모자 없이는 복식에 나타내고자 하는 자신의 메시지 전달이 불충분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모자를 의복과의 조형적 관계를 통해 완성된 룩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물로 인지하였다. 이러한 모자 스타일은 20세기의 예술양식과 결부됨으로써 끊임 없이 변화되고 의복과 조화를 이루면서 패션에 표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의 모자디자인의 특성을 예술양식에 영향을 받아 입체주의적 특성, 초현실주의적 특성, 미래주의적 특성, 복고적 특성, 민속적 특성으로 분류하고, 의복과 모자와의 관계를 조형적인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모자디자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진자료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1381장의 추출된 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체주의적 특성의 모자 디자인은 57.7%, 민속적 특성의 모자 디자인은 14.4%, 초현실적 특성의 모자 디자인은 8.7%, 미래주의적 특성의 모자 디자인은 8.1%, 복고적 특성의 모자 디자인은 6.2%, 기타 혼합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입체주의적 특성의 모자디자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으나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1998년 이후 민속적 특성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03년 이후부터는 복고적 특성 또한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모자 디자인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초반 미니멀리즘의 부활로 입체주의적인 디자인들이 많이 선보였으나, 1990년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세기말 현상으로 인해 일

시적으로 초현실주의적 특성의 디자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적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소외된 국가들의 민속풍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이에 따른 모자디자인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고, 복고풍 현상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앞으로의 모자디자인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지속으로 인해 복고적인 특성과 민속적인 특성의 모자디자인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의 모자 디자인이 과거의 모자 형식을 빌려 재창조되고 이국적인 요소가 결부되는 민속적인 성향으로 많이 나타날 것을 예측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의 모자 디자인을 창작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1) 이러한 근거는 폴린 맥도웰이 그의 저서 「HATS: Status, Style and Glamour」에서 초현실적인 특징과 입체주의에 영향을 받은 모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인 복고풍 스타일의 모자와 민속풍 스타일의 모자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수지 홉킨스는 「The Century of hats」에서 디자이너와 인물을 중심으로 이러한 예술사조에 영향을 받은 모자 디자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밀 뱅크는 그의 저서 「The Couture Accessory」에서 모자는 초현실주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 2)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공저 (1996). 복식문화. 교문사. p. 214.
- 3) 김선영 (2001). 오뜨꾸뛰르 작품에 표현된 현대 패션의 경향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p. 27.
- 4) Baudot, Francois (1996). *Fashion memoir-chanel*. Thames & Hudson. p. 49.
- 5) Baudot, Francois (1997). *Fashion memoir-Elsa Schiaparelli*. Thames & Hudson. p. 11.
- 6) Susan Langley (1998). *Vintage hats & bonnet: 1770-1970 Identification & Values*. Collector Books. p. 35.
- 7) 위의 책, p. 215.
- 8) Mcdowell, Colin (2000). *Hats: Status, style and glamour*. Thames & Hudson. pp. 177-210.
- 9) 위의 책, p. 40.
- 10) 위의 책, pp. 44-47.
- 11) Hopkins, Susie (1999). *The century of hats: Head-turning style of the twentieth century*. London: Aurum. pp. 166-210.
- 12) Milbank, Caroline Rennold (2002). *The couture accessory*.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ubli-

- shers, pp. 20-26.
- 13) John Golding 저, 황지우 역, 큐비즘. 열화당, p. 12.
 - 14) 정연자 (1998). 복식에 표현된 큐비즘에 관한 연구. 복식, 39, pp. 100-101.
 - 15) Milbank, Caroline Renolds. 앞의 책, p. 20.
 - 16) 박미영 (1995).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복식 양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 의류학과 박사학위논문.
 - 17) 윤계숙 (1993). 초현실주의적 표현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청주대 산업대 석사학위논문.
 - 18) Rebert Hughes 저, 최기득 역 (1993). 새로움의 충격. 미진사, p. 22.
 - 19) Boudot, Francois. 앞의 책, p 11.
 - 20) Keenan, Brigid (1983). *Dior in vogue*. Random House Value Publication, p. 55.
 - 21) White, Palmer (1986). *Elsa Schiaparelli*. A Eugene Braum-Munk Book, pp. 59-60.
 - 22) Taylor, Joshua(1961). *Futurism*.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p. 9.
 - 23) 위의 책, pp. 81-106.
 - 24) 박중희,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복고풍에 관한 고찰, 계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6.
 - 25) 박명희 (1991).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6) Colin McDowell. 앞의 책, p. 196.
 - 27) 박명희. 앞의 책, pp. 42-44.
 - 28) 류순경. 앞의 책, p. 31.